

봉녕사 학인스님들, 동유럽 포교에 나서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 시내 중심지에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도착하자 서구인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스님들이 향한 곳은 프라하 중심 광장에 위치한 '로투스 센터'. 한국 스님들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선원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포스터를 제작해 도심 곳곳에 붙였다.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스님) 승가대학(학장 도혜스님) 금강율학승가대학원(율원장 적연스님)이 4학년 졸업순례를 '동유럽 포교'로 택했다. 여행사나 가이드도 없이 떠난 전법순례의 길. 학장 도혜스님과 율원장 적연스님 그리고 체코에서 출가한 원정스님을 비롯한 졸업반 스님들 일행은 지난 10월29일부터 15일 동안 체코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를 순방하며, 한국불교문화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녕사 스님들은 이 기간 3개국 6개 도시를 찾았다. 방문지마다 학장 도혜스님은 염주와 연등의 참의미를 설명하고 모인 불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율원장 적연스

3개국 6개 도시 선센터서
한국불교 소개·다도명상
사찰음식 시연회 등 개최

익한 솜씨로 음식을 만들어 유럽불자들과 함께 나누며 불교문화체현을 통한 포교의 시간을 보냈다.

스님들이 방문한 3개국은 모두 산스님의 영향으로 센터가 마련된 지역이다. "브라하시네 마을회관에서 사찰음식 시연회를 열자 주민 70명 가운데 60여명이 회관을 찾아 음식을 시식하며 찬사를 보냈다. 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지역을 방문하자 대학생 40여명이 일행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지난 3일 열린 다도명상 및 불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40여 명의 대학생과 주민이 찾아 한국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을 기다렸다. 이들과 차명상을 하고 불교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월인스님은 "현지인들이 불교에 관심이 높았지만 이를 지도할 스님이 없다는 점이 무척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송원스님은 "〈화엄경〉을 공부

하면서 보현보살님의 실천행을 본받고자 이번 순례를 결정하였고, 이번 해에서 한국불교를 전할 기회가 생겨 무척 보람 있었다"며 "도보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한국인 스님들의 순례에 현지인

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 여옥스님은 "방문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을 접했으며, 일부 센터 불자들은 국내 무상사에서 안거수행에 참여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순례에서는 부처님 점

안식이 봉행돼 의미를 더했다. 슬로바키아 코시체 지역에 또 다른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불자들을 위해 한국 부처님을 모셔가 점안 의식을 가진 것. 율원장 적연스님은 "복장준비와 직접 불교의식을 준비하면서 스님들도 많은 공부가 됐을 것"이라며 "점안식을 마치고 오색실에 의미를 알려주며, 오색실을 잘라 손에 걸여주자 불자들이 정말 기뻐했다. 특히 지식층일수록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고 말했다.

학인 스님들은 "사중의 도움과 어른 스님들의 배려, 도반스님들의 원력이 없었다면 이번 순례는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에 인사를 전했다.

순례를 마치고 졸업을 앞둔 학인 스님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이어졌다. 학장 도혜스님은 "힘든 순례일정 속에서 하나라도 더 지역주민에게 전하려던 모습을 잃지 말고 졸업 후에도 수행과 포교의 원력으로 생활하기 바란다"고 학인들에게 정진을 당부했다.

수원=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차장직제 축소 팀장 중심 종무 활성화

재가종무원 인사 단행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제6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불기2557(2013)년 정기인사평가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정기 전보인사 시행 결과에 따른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율해 인사에서는 차장직제를 축소해, 팀장 중심의 종무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종단의 의지가 반영됐다. 종단은 19일 종무회의에서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에 각 1명씩 차장을 두고, 기존의 기획, 문화, 사회차장 직제를 축소했다. 3원 차장 외 나머지 부서의 차장들은 비활성화된 종령 기관에 재배치해, 종무행정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 총무차장에는 이석심 기획차장이 맡게 되며, 교육원 김병주 교육차장은 유임됐다. 포교차장으로는 윤영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팀장이 승진했다. 여성 재가종무원으로서 차장 소임을 맡은 것은 윤영희 팀장이 처음이다. 김영일 총무차장은 불교문화재연구소 사무국장으로, 박용규 불교문화사업단 사무차장은 조계종출판사 총괄부장으로 파견됐다. 파견기간은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다.

또 이석심 차장을 비롯해 20명이 오는 2014년 1월1일자로 승급하며, 인사평가결과가 최하위 5%에 해당하는 종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이현경 기자 eonakdo@ibulgyo.com

■ 인사내역(팀장급 이상)

△총무원 총무차장 이석심(전 기획차장) △총무팀장 김성동 △사찰교무팀장 윤순환 △기획팀장 김용구 △대의협력팀장 박주현 △홍보팀장 박정규 △법무감사팀장 김한일 △재무팀장 황호기 △시설관리팀장 정종모 △문화팀장 정유택 △문화재팀장 심주환 △사회팀장 김영주 △국제팀장 권대식 △호법팀장 공승관 △사서팀장 지정학 △교육원 교육차장 김병주 △교육팀장 심원섭 △연수팀장 류창무 △포교차장 윤영희 △포교팀장 조영희 △전법지원팀장 박성수 △신도팀장 윤효원 △중앙종회사무처 사무팀장 정창훈 △호계원 사무팀장 김정호

△불교중앙박물관 박물관팀장 이분희 △연등회 사무국장 박상희 △경사추진본부 결사팀장 이상봉 △직할교구처 사무팀장 전인동 △조계사 종무실장 이세용 △봉은사 종무실장 박종화 △중양산도회 기획실장 황철기 △조계종 출판사 총괄부장 박용규 △불교문화재연구소 사무국장 김영일 △불교문화사업단 사무차장 김성기 △팀장 홍민석(이상 12월1일자).

법주사 미타사 적석사 상운사

필리핀 태풍피해 돕기 ‘자비의 손길’

태고종 천태종 각 종단으로 이어져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한 불교계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와 서운 미타사, 강화 적석사, 고양 상운사 등 사찰들도 필리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비행에 잇따라 동참했다. 법주사 주지 현조스님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구호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법주사 주지 현조스님은 "참혹한 필리핀의 상황을 보고 서둘러 기금을 준비했다"며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운 미타사 주지 지만스님도 지난 19일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필리핀 주민들을 위해 불교계가 나서서 긴급구호 기금에 동참해야 한



다고 생각해 적지만 기금을 보냈다"며 필리핀 긴급재난 구호자금 5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적석사 주지 선암스님과 상운사 주지 진만스님도 필리핀 지원을 위해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와함께 태고종이 오는 12월20일까지 전국적인 성금모금활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도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태고종 법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이 성금을 모은데 이어 15일에는 연

수교육 참가 스님들이 모금활동에 동참했다. 또 지난 14일 열린 태고종 종사 및 시도 종무원장 연찬회를 비롯해 각종 모임에서 자발적인 성금모금이 이뤄지고 있다.

천태종도 천태종복지재단과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 공동주관으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태종은 17일 서울 삼통사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돕기 모금 대법회'를 개최했다. 천태종은 전국 사찰을 도는 순례법회를 통해 성금을 모금한 뒤 나누며 하나되기를 통해 필리핀에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운 흥천사 주지 정념스님은 지난 19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건립 기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안직수 염태미 기자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현조스님(오른쪽)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가운데)에게 구호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은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스님.

社 告 공동캠페인

필리핀 태풍피해 주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신문사는 지난 11월 8일 필리핀을 강타한 하이옌 태풍 피해로 절망에 빠진 필리핀 국민들을 위한 재해재난 긴급구호기금을 모금합니다. 태풍 참사로 수십만의 사상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한 필리핀에 자비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자비나눔 계좌
국민 023501-04-125198 (예금주: 불교신문사)
농협 301-0137-6667-1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 문의 : 02-730-4488(불교신문)
02-737-9595(아름다운동행)

대한불교조계종 · 불교신문

템플스테이, 여행을 선물하다 - 수험생을 위한 1+1 이벤트

1탄 2013 수험생을 위한 “그냥 다 관찮아!” 템플스테이

수험생을 위한 ‘2013 겨울 특별 템플스테이’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법주사 템플스테이로 떠나보세요!

• 장 소 : 충북 법주사

• 대 상 : 수험생 30명(동반 1인)

• 기 간 : 12월 7일(토) ~ 12월 8일(일)

• 참 가 비 : 5만원(동반 1인 무료)

• 접수방법 : 법주사 홈페이지(www.beopjusa.or.kr) / 전화 043. 544. 5656

• 프로그램 : 뮤직테라피, 긍정명상, 마음나누기 등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